

2024 4·10 선택이 역사가 됩니다

2024 22대 4·10총선 대구·경북 국회의원 당선자

대구



최은석 동군위갑, 강대식 동구군위를, 김기웅 중남구, 김상훈 서구, 우재준 북구갑, 김승수 북구를, 유명하 달서갑, 윤재욱 달서을, 권영진 달서병

경북



주호영 수성갑, 이인선 수성을, 추경호 달성, 구자근 구미갑, 강명구 구미를, 김석기 경주, 김정재 포항북, 이상휘 포항남·울릉, 김형동 안동·예천

경남



박형수 의성·청송·영덕·울진, 송언석 김천, 이만희 영찬·청도, 임이자 상주·문경, 임종득 영주·영양·봉화, 정희용 고령·성주·칠곡, 최경환 경산, 조지연 경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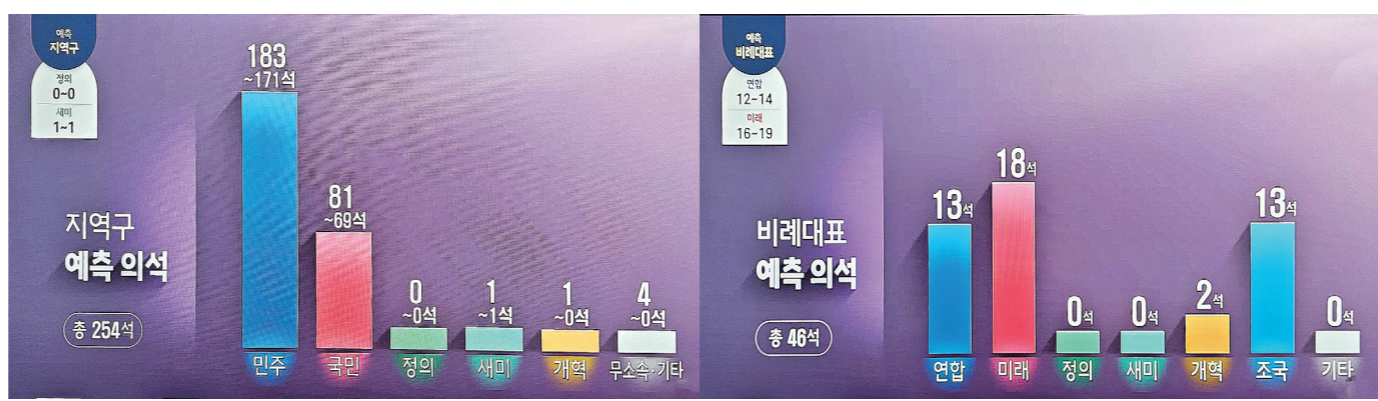
당선을 축하합니다
밤 11시 50분 현재

22대 4·10 총선 국민의 힘 참패...통탄의 눈물 흘렸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민주 178~197석 압도
국민의힘 85~105석
조국혁신당 12~14석

2024 22대 4.10 총선에서 국힘이 참패했다.

사실상 통탄의 눈물을 흘린 셈이다. 이 사실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확인됐다. 10일 실시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8~197석의 압도적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예측 보도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5~105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국혁신당도 12~14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3사의 출구조사대로라면 범야권



지역구 예측 의석

비례대표 예측 의석

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을 육박한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개헌(改憲)을 포함해 법안·예산·정책 등 모든 사안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총선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KBS의 출구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8~196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87~105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12~14석을 내다봤다.


방송 3사는 출구조사를 함께 한 뒤 각각 그 결과를 분석해 의석을 예상했다. KBS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6~182석을 얻고,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70~86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12~14석, 국민의미래가 17~19석, 조국혁신당은 12~14석으로 예상했다. MBC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84~197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88~95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MBC는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2~183석, 국민의힘이 68~80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12~14석, 국민의미래가 17~19석을 확보할 것으로 봤다. MBC는 새로운미래가 지역구에서 1석,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2석, 조국혁신당은 13석, 무소속이 최대 3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녹색정의당은 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MBC는 전했다. SBS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83~197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85~100석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이 12~14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이 1~4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상파 3사의 총선 출구조사는 전국 투표소 1980곳에서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한 유권자 35만 97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허용오차는 ±2.9~7.4%다. 사전투표 전화조사는 4월 6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5만 28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허용오차는 ±1.8~5.7%다. 이날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재적의원 297명에 더불어민주당 142명, 국민의힘 101명, 더불어민주당연합 14명, 국민의미래 13명, 녹색정의당 6명, 새로운미래 5명, 개혁신당 4명, 자유통합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9명이다. 김성용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감감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일보 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참패 예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과 윤재욱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승리 확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출구조사 결과에 충격받은 與...10분 만에 자리 뜬 韓

한동훈 "개표 결과 끝까지 지켜볼 것" 與, 참패 예상되자 암울한 침묵만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압승이 예상된 결과 지나왔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봤다. 이후 "실망스럽다"는 말을 남긴 채 상황실에 도착한 지 10분 만에 자리를 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대 총선이 실시된 10일 방송3사 출구조사가 발표된 이후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를 지켜본 후 "그렇지만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 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6시 22대 총선 본투표가 종료된 가운데,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승이 예측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상황실에 모여 지상파 3사 총선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했다.

한 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직전 상황실로 들어왔다.

한 위원장은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만희 국민의힘 영천·청도 후보 등과 악수를 한 뒤 작석했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178석·197석, 국민의힘은 85석·10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황실 중계 TV 화면에 해당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상황실은 한순간 조용해졌다. 한 위원장은 손을 모으고 표정 변화 없이 TV 화면만 응시했다.

야권 압승 예상이라는 결과에 환호하는 민주당 상황실 모습이 화면에 잡히자 국민의힘 일부는 탄식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 중 한 곳인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류성영 민주당 후보에 밀린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자 "이게 뭐야"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도 '경합'이라는 조사 나오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아, 뭐야"하며 탄식이 흘러나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도 경합이 예측되는 결과가 나오자 한 위원장은 고개를 가웃했다. 윤 원내대표도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며 서류를 갖고 온 한 당직자에게 손사래를 치며 보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들도 TV 중계 화

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 위원장은 막말 논란이 일긴 조국혁신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예측 '1위'로 나오자 다시 한숨을 쉬었다.

강승규 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후보 1위 예측이 나오자 참관인석에서 한 번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후에도 최민희 민주당 남양주갑 후보 우세, 김기표 민주당 경기 부천을 후보 등이 우세인 결과가 나오자 당 지도부는 언거푸 한숨을 쉬며 표정을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 직후 마이크를 들고 무거운 목소리로 "우리 국민의힘이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그렇지만 끝까지 국민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작게 미소를 지은 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곤 약 10분 만에 자리를 떴다.

일부 참석자를 제외하고 윤 원내대표와 선대위원 대다수도 자리를 떠났다.

한 위원장은 출구조사를 보던 도중 TV 음량을 낮춘 뒤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출구조사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선택을 지켜 보며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발언한 후 상

황실을 빠져 나갔다.

참관한 성적표가 예상되는 여당은 침울했고 압승이 예상되는 야당은 잔치집 분위기였다.

민주당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3사 모두 과반을 넘기는 압승을 전망하자 일제히 환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6시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당 개표 상황실에 모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MBC 개표 방송을 지켜본 이재명 대표는 휴대폰을 보던 중 출구조사 발표 10초 전에 돌입하자 무표정으로 중계화면을 지켜봤다.

오후 6시 정각에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단독 과반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회의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압승 예측에도 침착한 상태를 유지한 채 한동안 박수만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이어지자 이 대표는 긴장이 풀린 듯 왼편에 앉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그 옆자리를 지닌 김부겸 위원장과 악수했다.

지역구 출구조사 가운데 이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세하다는 예상으로 인해 장내에선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 대표는 박수만을 보

냈다.

최대 격전지라 불리었던 경기 성남 분당갑, 서울 중구성동갑, 경남 양산시 등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우세가 예측되자 장내는 금세 환호성으로 가득찼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만세를 외치며 주먹 쥔 두 손을 세계 힘들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감격스러운 듯이 밝은 표정을 짓기도 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 김영주 후보가 채현일 민주당 후보보다 열세한 결과가 나오자 곳곳에서 더욱 큰소리로 채 후보의 승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광주 광산을에서 민행배 민주당 후보보다 밀린다는 결과에도 박수와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 후보가 열세인 곳 출구조사 발표에는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탄식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동작갑의 김병기 후보가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와 경합이 예상이라 예상외로 장내에선 의외라는 탄식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 국민의힘 후보 우세 예측이 나오자 장내가 잠시 차분해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대표는 부산 일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우세하자 고개를 가웃하기도 했다.

판별 매출의혹 및 막말 논란이 빚어진 양문석 경기 안산갑,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발표에도 환호성이 잠시 잦아들기도 했다. 황태용 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상북도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4·환장·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산단 산업용 헬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파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한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교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세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계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아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4·10 총선 대구경북 색깔이... 흥행불패 신화 또 쓰아올렸다

대구 12곳 전 지역구 국힘 '우세'
경북 13곳 중 12곳 국힘 '우세'
경산시 조지연·최경환 경합

제22대 총선결과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색깔이 흥행불패의 신화를 다시 써 내려갔다. 투표가 종료된 직후 방송사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대구 12개 선거구/경북 13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든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12곳 전 지역구 국힘 '우세'

10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로 꾸려진 KEP(방송사예측조사위원회)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중·남구에서는 김기웅 국민의힘 후보 57.2%, 허소 민주당 후보 30.3%로 조사됐다. 동구·군위군갑의 경우 최은석 국민의힘 후보 74.6%, 신효철 민주당 후보 25.4%, 동구·군위군을은 강대식 국민의힘 후보 68.5%, 황순규 진보당 후보 26.3%로 예측됐다. 서구는 김상훈 국민의힘 후보 65.3%, 서중현 무소속 후보 34.7%로 나타났다. 북구갑에서는 우재준 국민의힘 후보 66.0%, 박정희 민주당 후보 32.9%, 북구을은 김승수 국민의힘 후보 65.9%, 신동환 민주당 후보 29.3%로 나왔다.



국힘 선거대책 사무소

수성구갑은 주호영 국민의힘 후보 62.8%, 강민구 민주당 후보 33.1%로 예측됐고 수성구을은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 71.2%, 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 16.8%로 조사됐다. 달서구갑은 유영하 국민의힘 후보 70.9%, 권택홍 민주당 후보 29.1%로 조사됐고 달서구을은 윤재욱 국민의힘 후보 74.4%, 김성태 민주당 후보 25.6%로 나왔다. 달서구병은 권영진 국민의힘 후보 70.0%,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 17.1%로 조사됐다. 달성군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72.7%, 박형룡 민주당 후보 27.3%로 예측됐다.

■경북 13곳 중 12곳 국힘 '우세'

22대 총선 투표가 종료된 직후 방송사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경북 13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 후보가 13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 지역구만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곳 중 11곳의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든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로 꾸려진 KEP(방송사예측조사위원회)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실 출신 30대 '진윤'과 4선

중진의 '진박' 좌장이 맞붙어 관심이 집중된 경산시에서는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가 47.4%로 40.6%를 얻은 최경환 무소속 후보를 6.8%p 차이로 앞섰다. 이 조사와 별도로 진행된 JTBC의 예측조사에서는 최 후보가 57%, 조 후보는 39%로 나타났다. 3선 도전에 나선 경북 포항시 북구의 김정재 국민의힘 후보와 경주시 김석기 국민의힘 후보, 김천시 송언석 국민의힘 후보, 영천시·청도군 이만희 국민의힘 후보, 상주시·문경시 임이자 국민의힘 후보는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재선에 도전하는 안동시·예천군의 김형동 국민의힘 후보, 구미시갑 구자근 국민의힘 후보, 의성군·정송군·영덕군·울진군 박형수 국민의힘 후보,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국민의힘 후보도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후보 중 유일하게 재선 도전에 나선 구미시을 김현권 후보는 대통령실 출신의 강명구 국민의힘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남구·울릉군의 이상휘 국민의힘 후보와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임종득 국민의힘 후보도 민주당의 김상현 후보와 박규환 후보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여은 기자

탄식 나온 국민의힘 대구...출구조사에 TK 정치권 희비 교차



10일 진행된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대구 여야정치권의 희비가 교차했다. 이날 오후 6시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200석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오자,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강당에 직접

해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TK(대구·경북) 후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후보들은 하나같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과 경기, 부산 등 타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후보들이 침묵을 지키는 사이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대통령 탄핵까지 가겠는걸"하는 탄식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와 당원 사이에선 고성이나 주호영 대구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만류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TK 후보들은 야권에 우세를 점한 대구·경북 출구조사가 나오고 나서야 웃음을 띠고 작은 소리로 덕담을 건넸다. 대구와 경북 관세에서는 우세를 보였지만 전국 관세에서 열세를 보이자, 후보들은 출구조사를 약 20분가량 지켜보다 별다른 언급 없이 자



리를 됐다. 반면 대구지역에선 약세를 보였지만 전국 관세에서 우세를 점한 민주당 대구시당은 정당별 예측의석수가 발표되자 손뼉을 치며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조미경 기자

대구도 투표 행렬 "다음 국회는 만장일치로 서민 위해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소중함을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했다. 생애 처음 투표에 나선 20대부터 지팡이를 짚은 고령의 할머니까지 투표소를 찾았다. 대구 수성구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여성은 "이번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은 정당끼리 그만 싸우고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서민들을 위해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딸의 부축을 받으며 투표소로 향한 90대 할머니는 "이번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면 만장일치로 국회의원을 수를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며 "서로 싸운다고 일 안 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날 '인생 첫 투표'를 한 대학생 이 모 씨(20·여)는 "긴장한 채로 투표소로 찾았다. 제대로 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어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과 이력 등을 꼼꼼히 챙겨봤다"며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 인증샷도 남겼다"고 말했다. 휠체어를 탄 채 투표소에 방문한 50대 남성은 당선될 국회의원들에게 "약자까지 챙기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 중구 대구행복기숙사 1층 청년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도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의 발길



이 이어졌다. 남편과 함께 온 성내동 주민 박 모 씨(40대)는 "사전투표일에 일정이 있어 본 투표일에 소중함을 행사했다. 4년간 대구 중구 주민을 위해 일할 임무를 띠는 날인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며 웃으며 말했다. 대구 12개 지역구 당선자 윤곽은 지역구의 경우 자정쯤, 비례대표는 11일 새벽 시간대 나올 것으로 보인다. 30년 만에 '수검표' 절차가 부활한 데다, 비례대표의 경우 투표용지가 길어 개표 사무원들이 일일이 투표지를 보며 어느 정당에 투표했는지 분류하는 수검표가 이뤄져 예년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여은 기자

대구 젊은 유권자들 "일자리 만들어 주고 물가 잡아주세요"

남구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젊은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일대에 원룸촌이 있어 젊은층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준비생인 20대 여성은 "새로 뽑히는 정치

인들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주변에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상당수가 '대구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남성 직장인은 "청년층 등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정책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화제의 지역 개표 현황 개표율 56.56% 23시 06분 기준

<p>서울 중구성동구갑 개표율 88.52%</p> <p>전현희 51.67% (더불어민주당 56,688표) 3.35%p 3,676 표차</p> <p>윤희숙 48.32% (국민의힘 53,012표)</p>	<p>경기 수원시정 개표율 83.98%</p> <p>이수정 50.51% (국민의힘 58,308표) 1.03%p 1,183 표차</p> <p>김준혁 49.48% (더불어민주당 57,125표)</p>	<p>부산 연제구 개표율 64.42%</p> <p>김희정 53.06% (국민의힘 43,176표) 6.13%p 4,981 표차</p> <p>노정현 46.93% (진보당 38,195표)</p>	<p>서울 마포구갑 개표율 50.51%</p> <p>이지은 49.77% (더불어민주당 25,190표) 3.21%p 1,626 표차</p> <p>조정훈 46.56% (국민의힘 23,564표)</p>
<p>서울 동작구을 개표율 39.79%</p> <p>나경원 55.56% (국민의힘 25,674표) 11.13%p 5,144 표차</p> <p>류삼영 44.43% (더불어민주당 20,530표)</p>	<p>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개표율 31.62%</p> <p>안철수 50.82% (국민의힘 26,363표) 1.65%p 853 표차</p> <p>이광재 49.17% (더불어민주당 25,510표)</p>	<p>서울 종로구 개표율 74.53%</p> <p>곽상언 51.07% (더불어민주당 33,397표) 6.84%p 4,473 표차</p> <p>최재형 44.23% (국민의힘 28,924표)</p>	<p>서울 양천구갑 개표율 56.58%</p> <p>황희 52.02% (더불어민주당 42,161표) 6.04%p 4,888 표차</p> <p>구자룡 45.98% (국민의힘 37,273표)</p>
<p>부산 해운대구갑 개표율 38.21%</p> <p>주진우 51.71% (국민의힘 25,147표) 4.91%p 2,387 표차</p> <p>홍순헌 46.8% (더불어민주당 22,760표)</p>	<p>경남 양산시을 개표율 82.41%</p> <p>김태호 51.87% (국민의힘 42,397표) 3.75%p 3,057 표차</p> <p>김두관 48.12% (더불어민주당 39,340표)</p>	<p>서울 도봉구갑 개표율 56.99%</p> <p>안귀령 49.69% (더불어민주당 26,815표) 2.27%p 1,228 표차</p> <p>김재섭 47.42% (국민의힘 25,587표)</p>	<p>경기 화성시을 개표율 21.30%</p> <p>이준석 43.08% (개혁신당 11,227표) 3.04%p 792 표차</p> <p>공영운 40.04% (더불어민주당 10,435표)</p>
<p>경기 하남시갑 개표율 14.85%</p> <p>이용 56.7% (국민의힘 8,562표) 13.41%p 2,024 표차</p> <p>추미애 43.29% (더불어민주당 6,538표)</p>	<p>서울 중구성동구을 개표율 45.70%</p> <p>박성준 54.46% (더불어민주당 30,336표) 9.5%p 5,291 표차</p> <p>이혜훈 44.96% (국민의힘 25,045표)</p>	<p>부산 북구갑 개표율 40.62%</p> <p>전재수 55% (더불어민주당 18,661표) 10.91%p 3,702 표차</p> <p>서병수 44.09% (국민의힘 14,959표)</p>	<p>인천 계양구을 개표율 57.48%</p> <p>이재명 54.38% (더불어민주당 27,955표) 9.15%p 4,702 표차</p> <p>원희룡 45.23% (국민의힘 23,253표)</p>

보다 나은 농어촌
fb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i**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

“나부터 청령하GO! 우리 함께 청령하GO! 모두 청령하GO!”

ki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농지연금

KRC 11호 2024.04.11 (농지은행법 제 11조 제 1항)



동구청, '정보 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 큰 호응

동구청의 정보화 교육이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르신, 장애인, 주부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교육은 지난 2000년부터 운

영 중으로 올해는 4월 현재 243명이 수강 중이다. 교육은 △초급과정 △활용과정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초급과정은 스마트폰, 파워포인트, 엑셀, 컴퓨

터 초보, 활용과정은 한글 문서 작성부터 동영상 편집, 인터넷 활용, 무인 결제기(키오스크) 등을 교육한다.

특히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술환경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노후를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되는 무인 결제기 과정은 인기가 높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4월 중 지역 주민,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거쳐 5월 중 확정 예정



부족하다고 판단돼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물질배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염색산업단지는 1980년 설립 인가 후 현재,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조업 중

이다. 지난 '20년도 한국환경공단 악취실태조사에 따르면 염색산업단지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20~'23년 서구청에서 실시한 염색산업단지 사업장의 악취검사 결과 매년 사업장의 8~15% 정도가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년 9월부터는 신규입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악취관리에 대한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대구

염색산업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4월 중에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공고(4월 11일부터 26일)를 실시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5월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염색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업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 시에는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는다.

한편 대구시는 서·북부지역의 악취민원 해소

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악취전문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악취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해 악취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피해지역 영향평가, 발생원 조사 등을 통한 악취저감 대책 반영을 위해, 환경부에 요청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더불어 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식목일 기념 환경교육 및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달성군청소년센터는 지난 6일 식목일을 기념해 초등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환경의식을 기르기 위한 청소년수련활동인 증제 '환경지킴이, 리플레이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환경지킴이, 리플레이 프로젝트'는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의 실태와 환경보존을 위한 생활 속 실천방안을 교육하고 기존에 버려지던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업사이클링 활동으로 구성됐다.

이번 업사이클링 활동은 양말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산업폐기물 양말목을 활용해 바구니를 만들고 네온사인용 LED 새운 공예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진행됐다.

신성진 달성군청소년센터 관장은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청소년 시기에 환경교육은 필수가 되었다"며 "청소년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사회구성원으로서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미래지향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포토뉴스 | 달성군이 아껴둔 대구의 숨은 톨립 명소, 다사 세천뉴테마정원으로 놀러오세요! 달성군 다사읍 소재 세천뉴테마정원(세천리 1669번지)에 알록달록 여러 색상의 톨립이 가득하다. 조여은 기자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적기 치료에 총력

공공의료기관(대구의료원) 비상진료 강화 방안 마련

대구시는 의료상황 악화를 대비한 중증·응급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재점검하고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시는 수련병원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 위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118개소 의료기관 진료과목별 현황을 공유하는 전원 핫라인을 구축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재활을 위한 전원병원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지역 재활병원 53개소의 정보를 연계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19개 응급의료기관의 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가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진료불가능 질환 등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해서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이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중증환자 병원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가동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의사집단행동과 관련된 중대 피해사태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해서 즉각 대응 현장출동팀(1개반 4명)이 구성돼 있다.

향후 의료상황이 더욱 악화돼도 중증응급환

자의 적기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재점검하고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대구의료원의 진료의사 5명을 추가 채용하고 진료지원간호사를 추가 확보하는 등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병상 상황에 따라 유휴병상 169개를 순차적으로 추가 가동하게 된다.

아울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수술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북대병원에 대구의료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주 2회 수술지원 예정으로 지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의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병원 간 협력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118개소 전원 핫라인 운영기관을 필요시 추가 확대하고, 의료진 부재 등으로 자체 전원이 곤란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상가동률 및 개원의 집단 휴진 규모에 따른 비상진료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상황 악화 시 단계별 비상진료체계가 즉시 가동되도록 준비해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는 보건 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상황을 면밀히 살펴 비상진료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중구청, 2024년 대구 근대골목 일러스트 공모전 개최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대골목 주제 공모전



중구청은 근대골목의 새롭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대구 근대골목 일러스트 공

모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공모전은 주제는 근대골목 1~5코스로 근대골목 곳곳에 남아있는 풍경, 인물, 건축물, 문화, 스토리 등 근대골목에 스며있는 삶과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공모 기간은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근대골목에 관심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부문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부와 대학생을 포함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부다. 작품 크기는 A3(가로 420mm, 세로 297mm)로, 이미지 파일(JPG, JPEG, PNG 등)과 참가신청서 등의 제출서류를 이메일(golmokpic@naver.com)로 접

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완성도, 예술성, 주제적합성, 참신성, 홍보효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0월 총 14점을 선정해 660만원 규모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근대골목 일러스트 공모전 사무국(053-756-9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많은 분들이 이번 근대골목 일러스트 공모전에 참여해 우리 중구가 가진 근대골목이라는 차별화된 매력을 새롭게 아름답게 표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2024년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지원 사업 적극 추진

미래모빌리티 기술개발 지원 과제별 2.5억 원 내외 지원

대구시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미래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신규 과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1일부터 5월 13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대구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이며, 심사 절차를 거쳐 7월 중 참여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전기차, 자율차, 수소차, UAM 핵심부품 개발이며, 모집유형은 단기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시장진출 및 초기 사업화 지원을 돕는 '매출 향상사업', 대구시로 사업장 이전을 완료한 기업 대상으로 지원하는 '투자유치 연계사업', 미래모빌리티 신사업 분야 진출을 지원하는 '업종 확장사업', 비영

리기관의 자체 예산을 매칭해 지원하는 '기관-지역기업 협력사업'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성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원 규모는 지난해 선정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및 전기 UAM 구동용 고효율 배터리 팩 개발' 등 6개의 계속 과제를 포함해 총 9개의 과제에 시비 2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여은 기자



영양군, 안전점검의 날 계몽운동

영양군은 9일 오전11시, 현2리 양평경로당에서 안전점검의 날 계몽운동을 했다. 계몽운동은 군청 건설안전과, 영양119안전센터 직원, 지역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약 30

여명이 참석, 산불 예방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영양119안전센터의 협조로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군은 안전점검의 날 계몽운동과 연계한 생활

안전 관련 체험형 교육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매년 관내에 산불이 3-4건 정도 발생, 철저한 예방을 목표로 산불 취약지에 대해 계도 활동으로 산불 없는 영양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영천은 누가 뭐라해도 '와인 중심도시'

랜드마크 영천와인터널 재개장 'MZ 세대' 겨냥 이색명소 변신

영천시는 약 8개월간의 새 단장을 마친 영천의 이색명소 영천와인터널과 갤러리가 'MZ 세대'를 취향 저격할 수 있는 영천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해 운영을 재개한다. 재개장을 시작으로 영천와인터널이 누구나 방문해 영천와인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하고 친근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와인의 중심도시 영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영천와인터널은 폭 4m, 길이 약 70m에 달하는 인공터널로 1년 내내 와인 숙성에 가장 좋은 온도 16도, 습도 70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 더위와 추위 등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와인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새 단장 동안 가장 많은 변화를 맞은 곳은 영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와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 와인갤러리이다.

와인숙성 오크통과 비슷한 어둡고 무거운 기존 이미지에서 탈피해 밝고 세련된 분위기로 변모한 와인갤러리에서는 영천의 다양한 와인들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와인 관련 서적들도

읽어 볼 수 있다. 단조롭고 개성이 부족했던 와인터널 및 와인학교 입구 벽면은 감성적인 벽화 포토존이 설치되어 이용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국 최대 포도 주산지 중의 한 곳인 영천시는 2006년 와인산업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역특화산업인 와인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한 결과 14개의 와이너리가 조성됐다.

베를린 와인트로피, 아시아 와인트로피 및 국내외의 다양한 품평회에서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영천와인터널 및 갤러리는 평일오전9~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천와인사업단(054-331-68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은하 기자

울릉군, 사진 지도로 보는 울릉 문화유산 발간

독도박물관 연구총서 문화유산 설명 총망라



독도박물관은 2024년 4월 9일 독도박물관 연구총서 "사진과 지도로 보는 울릉군 문화유산"을 발간했다.

연구총서에는 울릉군에 산재한 문화유산 중 84개를 선별, 정확한 위치 정보와 사진자료 그리고 각 문화유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울릉군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2002년 경북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문화유산 분포지도-울릉군" 이후 전무했다.

해당 연구도서에 표기된 문화유산의 위치정보가 부정확하여 활용의 측면에 있어 한계를 가졌다.

독도박물관에서 발간한 도서에서는 문화유산의 명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연구용역을 시행,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점을 가진다.

독도박물관은 해당 연구총서를 작성하기 위해 울릉도의 문화유산을 형태에 따라 자연유산, 고분군, 금석문, 고가, 민속 등으로 분류했다.

이 중 유의미하고 현존하고 있는 문화유산 84개에 대한 조사 및 기록화사업을 했다. 그 결과를 활용, 울릉도의 고대문화유산인 남서리 및 현포리 고분군에서부터 현대문화유산인 월성김씨절부비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지역별 문화유산을 구분하여 연구총서를 작성했다. 울릉도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유산들의 이야기들을 따라 가다보면 울릉도의 역사와 문화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윤환 기자



김광열 영덕군수(맨 앞 왼쪽에서 5번째)가 지난 1일 개강한 경북도민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의 수강생들과 입학식을 축하하고 있다.

"참 반갑다 외국인 근로자야" 인력부족 해소

청송군, 2024 상반기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49명입국

청송군에 외국인 근로자가 왔다.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24 상반기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49명이 입국했다.

계절근로자는 지난달 13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송출되는 첫 인력이다.

19농가에서 5~8개월 간 영농작업에 투입된다. 입국 후 청송으로 이동한 근로자들은

고용주 대면식을 갖고 각 농가로 배치됐다. 지난 8일에는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문화의 이해와 근로자 준수사항, 고충·위급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신체·마약검사, 개인 통장개설 등 앞으로 청송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배치해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용 농업인과 계절근로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병문 기자

도민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 평생교육으로 '인생2막' 지원

군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서비스와 사회참여 기회 제공

영덕군은 지난 8일 경북도민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의 첫 강의로 '음악 놀이를 통한 긍정 마인드셋'을 진행했다.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지원하

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군은 지난 1일 영덕문화체육센터 여성회관 1층 강의실에서 수강생과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경북도민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 개강식을 열었다.

올해로 4회째인 도민행복대학 명예학사 과정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로 시민교육의 토대를 마련한다.

지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지적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개강식에서 김광열 군수는 "100세 시대의 평생학습은 활력 넘치는 삶의 바탕이자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통해 인생 2막의 즐거움과 행복을 열어주는 밑바탕"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을 만

들기 위해 배움의 장으로 나선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응원했다.

올해 경북도민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는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에서 위탁 운영하며, 50여 명의 수강생이 첫 강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0주간 인문학, 경북학 등 7대 영역의 강좌를 수강하고 사회참여 활동도 함께 펼치게 된다. 조여은 기자

영양외버스터미널 맞춤형 터미널로 변신

영양시외버스터미널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영양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영양시외버스터미널 운영개선방안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오도창 군수 주재로 인구 감소 및 노선 축소,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열악해진 영양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의 안정성을 제시한다.

용역은 지난해 11월 착수, 지난달 중간보고회를 거쳐 영양시외버스터미널 운영 대책을 다양하게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을 맡은 ㈜도시경영연구원 영양시외버스터미널의 환경분석, 공영

화의 타당성, 터미널 복합화 기본구상, 연계사업 검토, 토지매입·수용 절차 등으로 나눠 운영 대책을 다양하게 검토 및 분석했다.

군은 고령 인구의 주요 이동 수단인 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터미널 공공매입, 상업시설, 공공업무 시설을 포함한 터미널 복합화 등 영양시외버스터미널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 영양군민이 불편함이 없고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영양시외버스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영양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권윤동 기자

김하수, 청렴도 향상... 낯은 문화 학 바꾼다

청도군, 청렴문화 이끌 청렴추진단 발족 첫 회의

청도군은 지난 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군정 실현을 위한 '청도군 청렴추진단 1차 전략회의'를 가졌다.

청렴추진단은 반부패 청렴추진체계 정립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청렴조직 문화를 구현한다. 직원 인식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기 위해 김하수 군수를 추진단장으로 고위직 공무원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했다.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계획을 비롯, 청렴시책 추진방향과 부패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첫 공식 회의였다.



청렴추진단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 꾸려진 만큼 향후 반부패-청렴정책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 점검 및 취약분야 개선 등 전 직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4회 이상 수시로 개최한다.

김하수 군수는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의성군, 벼 재배 지원사업 본격 시행

의성군이 본격적인 벼 재배를 앞두고 지역 농가의 성공적인 경작을 돕기 위해 벼 재배 지원사

업을 본격 시행한다. 사업은 벼 재배의 전 과정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군은 관내 벼 재배농가에 품질이 보증된 육묘용 상토 8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

불량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육묘 실패율을 줄이고, 충실한 건토를 생산, 안정적인 벼농사를 실현하게 된다.

초기 병해충 방제를 위해 필요한 약제도 3억여 원 지원한다. 벼 재배 시 초기 병해충 방제의 중요성을 인식, 한 번의 처리로 병해충 방제가

가능한 육묘상 처리제를 농가에 공급, 벼 재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주수의성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농가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울진군, 아이 부모의 행복한 육아도시 건설

울진군은 오는 19일 울진군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모특강을 한다.

강사는 네이버 인기 웹툰 '닥터앤닥터 육아일기'의 닥터베르 작가(본명 이대양)이다.

강의는 서울대 공학박사에서 전업 육아 아빠로 경력단절, 그리고 '닥터앤닥터 육아일기' 웹툰 작가로의 전환까지, 육아와 학업을 병행한 작가의 경험을 통해 부모의 꿈과 아이의 꿈이 공존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다.

신청은 19일까지 선착순 60명이다.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및 관내 부모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고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특강을 통해 육아로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하고 위로와 공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영유아 부모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진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 장난감 구매에 따른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도록 고우이(울진읍), 남부(후포면) 2개소에서 화~토요일까지 운영 중이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반영, 선호도 높고, 발달 단계별 창의력을 높이는 장난감을 상반기 추가 구매한다. 이정수 기자



경주시, 봄철 식중독 예방 계몽운동 가져

경주시가 지난 6일 제31회 벚꽃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봄철 식중독 예방 계몽운동을 했다. 계몽운동은 경주시 식품안전과 직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식중독 예방수칙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어깨띠를 착용해 홍보물과 물티슈 2000개를 배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봄

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져 철저한 예방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 3대 수칙 '손씻기, 끓여먹기, 익혀먹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세용 식품안전과장은 "식중독을 사전 예방해 방문객 누구나 안전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버스킹 공연이 지난 7일 황성공원 충훈탑 네거리에서 펼쳐지고 있다.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 '봄이왔나봄' 버스킹 공연 성료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 '봄이왔나봄' 버스킹 공연이 성황리 종료됐다. 이번 공연은 지난 7일 경주 황성공원 충훈탑 네거리에서 열렸다. '봄햇살, 음악으로 만나다'라는 주제로 청소년 단원들의 열정적인 연주와 김석구 지휘자의 유쾌한 해설이 있는 감각적인 공연을 연출했다. 드라마 OST Beautiful, You raise me up, 바람이 불어오는 곳, Permission to Dance, 베토벤 바이러스 등 익숙한 음악으로 완전한 봄의 감성을 나누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배경에 아동청소년과장은 "버스킹 공연은 청소년 단원들이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발휘하고, 시민들은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접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돼 기쁘다"고 전했다. 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올 5월에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경주-영월 이음지음 교류음악회,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 버스킹을 선보인다.

경주 도자기 축제 19일 개막... 감성과 실용의 만남

청화백자 특별전 준비

색다른 볼거리 제공

경주지역 도자기와 생활 공예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소장할 수 있는 '제22회 경주 도자기 축제'가 오는 19~28일까지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펼쳐진다.

경주도예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바람'이라는 주제로 예년보다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제공한다.

축제는 △전시·판매 △만들기 대회 △체험행사 △문화공연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주도예가협회 36곳 업체는 도자기 1500여점, 목공예품 등 기타공예 200여점을 전시해 전시·판매를 실시한다.

올해는 청룡의 해를 맞아 '청화백자 특별전'을 준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하얀색의 도자기에 푸른 색채로 가득 채운 화려한 매력의 청화백자는 장인의 정교한 기술과 다채로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중앙부스에서는 가족 도자기 만들기 대회를 21일 오후 2시부터, 어린이 도자기 만들기 대회

를 27일 오후 2시부터 각각 개최해 가족단위의 방문객을 유도한다.

흙 밟기 체험, 유명작가 발물레 시연, 토우 만들기 등을 비롯해 고유 찻잔을 이용한 다도시연 및 시음 등으로 이색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토·일요일에는 무대공연과 버스킹 공연으로 행사장 흥을 돋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통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재해석을 더해 경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보다 발전적으로 승화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는 지역 도예가 협회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리다"며 "축제기간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지역 도자기와 예술가들의 멋과 흥을 느껴보는 좋은 시간을 가져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봄 맞이 전통 마당극인 '신라오기' 공연 선봬

4월13~5월18, 매주 토요일

교촌한옥마을 광장서 열려



경주시가 봄을 맞아 전통 마당극인 '신라오기'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을 선보인다.

신라오기는 고운 최치원의 절구시 '향약잡영 5수'에서 읊어진 금환(저글링), 대면(무용), 산예(사자춤), 월전(가면극), 속독(무용)의 다섯 마당으로 이뤄진 창작공연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예술인 20여명과 관객이 만들어 가는 참여형 공연으로 현장에서 관객 반응에 따라 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신라역사를 소재로 관객들과의 재담과 놀이가 어우러져 장르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으로 펼쳐진다.

공연은 오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1회 교촌한옥마을 광장에서 진행된다. 교촌문화공연 '신라오기'는 2014년부터 지역예술인의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예술진흥, 교촌한옥마을의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시는 이번 신라오기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인 프라를 구축하고,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지역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문화관광 누리집, 경주문화재단 누리집(www.garts.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주시, 우수한 품질 경쟁력 있는 지역 상품 올인

경주시가 지역 기업의 우수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경주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사업'에 본격 나선다.

사업은 온라인 진출역량 강화와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 개척이 핵심 골자다. 먼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0개사 대상으로 온라인 이커머스 교육에 나선다.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다.

1회당 2시간씩 이커머스 플랫폼 이해 및 운영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온라인 플랫폼 우수제품 개발을 지원에 나선다.

이커머스 플랫폼 공동 제품개발을 위해 기업

한 곳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5명만 선정한다. 이달 중으로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 업체 선정은 다음달까지 완료한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온라인 쇼핑물 입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쇼핑물 특별 기회전도 개최한다.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100개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채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과 상세페이지 제작, 콘텐츠 제작, 프로모션, 라이브커머스, 페이지노출 등을 지원한다.

윤용찬 기자 / 사진은 경주시제공

2025 APEC 정상회의의 최적지 GYEONGJU. 준비된 국제회의도시, 이제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HICO와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지구이 강력한 인프라, 완벽한 안전과 경호로 세계 정상을 맞이하겠습니다.